

2026.10.18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왕과 백성에게 하는 사무엘의 담론과 당부
본문: 사무엘상 12장6-25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강 속에서 모든 지파들은 말씀으로 연합이 되었다. 은혜가 익숙해진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서 육신의 것을 따라 왕을 세우고자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간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하신다. 나라를 새롭게 출범하는 시작함에 있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삼상11:14-15]**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운 왕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예배 속에 말씀을 받고 응답 받아 가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본론>

1.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크신 은혜의 회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백성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막 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신다.**[삼상12:8-11]** 너희는 악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

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창3장 이후 죄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것을 아시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 처럼 되려고 범죄 하면서 죄를 범하고 언약대로 죄책인 사망이 와서 죽음에 이른 상태로 모든 사람이 이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신다.**[롬5:12]** 인간의 대표로 계약을 맺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도 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죽음, 흑암의 권세 아래 끌려가고 진노의 벌이 임한 인생이 된 것이다. 인간에게 수 많은 재앙이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엡2:1-3]**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최고의 은혜의 비밀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언약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며 세상을 살리고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들을 이끄신 은혜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롬5:8]**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고 원수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진노의 삶에 거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이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

2.무지와 부지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의 삶

▶사무엘은 이어서 백성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러한 백성이었는데 너희는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그 속에는 너희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삼상12:12-15]** 왕정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제도, 추세, 유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내가 주인 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다 계신다.**[삼상8:7]** 사무엘은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며 말씀의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세우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증거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이 들어나고 깨달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속에 있는 진짜 죄의 모습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잡을 증거를 주신다.**[삼상12:16-18]**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하신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도 잊기 쉽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의 완고함에 빠지기가 쉬운 오늘이라는 매일의 삶에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히3:12-14]**

3.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사무엘이 증거하는 이 설교(담론) 이후에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다. 죄를 깨닫는 이것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멸망 받는 자기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자신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의 본성을 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말씀하신다. **[삼상12:23]**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구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어서 그렇기에 너희를 위해 나도 기도할 것이고 의로운 길, 복음을 가르칠 것을 말한다.**[삼상12:23]** 그러니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하고 그만을 섬기라 당부를 한다.**[삼상12:24]** 그러면서 명심할 것이 너희가 너희도 모르게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듯이 이 말씀을 떠나면 멸망 것을 말하다. 앞으로 더 인간적인 시스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기에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쉬워지는 시대를 만나게 된다. 지금은 자유의 시대 내가 주인 된 주권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삼가 나를 권면하며 완고히 되지 않도록 끝까지 언약을 잡고 어떤 환경과 변화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은 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그 축복 속에 응답받아 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한다.